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10~1945) 원효(元曉)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최 재 목 · 손 지 혜

목 차

서론

제1장 일제강점기 원효의 발굴

제2장 식민동화정책의 표상으로서의 원효

제3장 일본불교의 침투- 대처와 파계

결론

서론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원효(元曉, 617-686)(이하 원효)라는 인물이 논의된 배경, 그리고 당시에 이루어진 원효 표상화(表象化)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원효의 이미지는 소량의 대표적 전기문헌¹⁾, 예컨대 대표적인 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송고승전(宋高僧傳)』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문헌에 기록된 원효의 설화나 업적이 시대적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재구성되며 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 승려인 원효는 고려시대까지도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불교계에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며 왕조의 억불(抑佛)정책과 함께 원효도 이전만

* 본 논문은 영남대학교 연구조교활용과제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209-A-251-049)

1) 원효의 전기류(傳記類)에 속하는 문헌 및 일차자료를 한·중·일 국가별로 표로 정리 한 것이다.

<표 1> 국가별 원효 전기 목록

큰 조명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²⁾

한편 일제강점기에 와서 원효는 한·일양국의 학자 및 불교계 인물들에 의해 재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공간이 원효라는 인물의 표상화를 필요로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원효는 우리 역사상 차지해온 위상만큼 정치적 활용가치도 높았을 것이며, 그를 상징하는 몇 가지 대표적 특성들은 시대상황의 요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원효는 생애·저술·사상의 여러 측면에서 불교계 인물로는 누구보다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원효라는 인물의 유포와 확산이 갖는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에 원효를 언급한 자료들을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효가 당에 유학하지 않고도 독자적 사상체계를 확립한 인물로 한층 부각된 것은 식민지배하의 조선인의 민족적 자존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원효 전기 목록		
한국 기록	-金石文-	新羅 高仙寺 誓幢和上碑
	『三國遺事』	元曉不羈, 太宗春秋公, 前後所將舍利, 義湘傳教, 二惠同塵, 蛇福不言, 廣德嚴莊, 郎智乘雲,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大覺國師文集』	祭芬皇寺曉聖文, 依海東疏 講金剛經 慶而有作, 讀海東教迹, 和評論, 靈通寺大覺國師碑
	(其他)	『大乘起信論同異略集』, 『丘龍和上』, 『東國李相國集』, 『小性居士贊 并序』, 『東國李相國集』, 『八月二十日 題楞迦山 元曉房 并序』, 『東文選』, 『和諍國師影贊』, 『破閑集』, 『無碍歌』, 『三國史記』, 『薛聰條』, 『東師列傳』, 『元曉國師傳』, 『秋江先生文集』, 『逍遙散 經元曉舊居 創木題詩』, 『希菴集』, 『海南 大茈寺 事蹟碑銘』, 『四名子詩集』, 『宿元曉菴』, 『古歡堂收竹』, 『芬皇寺』, 『江原道淮陽府金剛山長安寺事蹟』, 『陳那菩薩化身』, 『天竺佛影寺記』, 『韓國寺刹全書』, 『大權菩薩』, 『朝鮮寺刹史料』, 『獅盤臺事蹟記』
중국 기록	『宋高僧傳』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唐新羅國義湘傳』
	『新修科分六學僧傳』	(卷二十八), 定學 證悟科, 『元僧傳』
	『林間錄』	(卷之上) 『元曉大師』, 『金剛三昧經』, 『元曉』
	『指月錄』	(卷七) 『未祥法師』
	『高僧摘要』	(卷四) 『釋元曉』
	『華嚴懸談會玄記』	(卷二十) 『海東元曉』
일본 기록	『釋氏蒙求』	(卷之上) 『元曉難敵』
	『續日本記』	天宗高紹天皇 光仁天皇
	『華嚴宗祖師會典』	『義湘傳』, 『元曉傳』

2)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원효연구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秦星圭 2000)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원효의 불교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가 갖는 성리학의 한계 때문에 그 이해가 제대로 안되고, 다만 원효의 명성에 걸맞게 그 이름만이 많은 사찰에 분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신라’나 ‘호국’의 상징 인물로 묘사된 사례가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문화를 비롯한 주요사안들이 국가존립과 밀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1910~1945년의 일제강점기로 시기를 한정하고, 당시 원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자료로 저서 및 신문 잡지·소설·유물(금석문) 등에 주목하면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원효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당시의 식민지 상황이라는 정치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제에 의해 생성된, 혹은 그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 피식민지하의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가나 민족 등의 다양한 시점들이 개입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³⁾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원효라는 표상에 숨은 양측의 논리를 짚어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미리 언급해 둘 점은 이 논문은 원효가 일제강점기에 조명 혹은 부각에 대한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예비적 고찰이다.

제1장 일제의 식민지배와 원효의 발굴

조선왕조의 억불로 침체되었던 불교계는 한일합방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가 해제⁴⁾된 후 불교계에는 점차 민족운동과 학문정립과 같은 자

3) 원효는 주로 일심·진속원융무애사상으로 대표되는 인물로, 이러한 사상이 갖는 융화·화합적 특성은 원효를 민족 혹은 국가와 결부 짓는 데 유용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관은 그의 저서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에서 “민족주의적 한국불교사관은 식민지 대항의 담론으로 일제하 민족적 감정을 집결시키는 구심점으로 최남선은 원효의 통불교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반식민지적 저항담론이자 민족주의적 성향은 해방 후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유통되며 이어져 오고 있다. 최남선의 원효는 조명기의 원효이기도 하고 최남선의 통불교(通佛敎)는 조명기의 총화불교(總和佛敎)이기도 하다. 이런 탐색은 다시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냉전체제하의 군부정권 속에서 다른 언어를 갖는다. 김동화는 『신라불교의 특성』(1959)에서, 조명기는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에서 한국불교의 특징을 호국불교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이 한국불교를 특징지우는 지배담론으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심재관 2001:83)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심재룡은 통불교를 언급하는 성향은 다카하시도오루와 같은 식민주의 불교관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였으며, 군사정권에 의해 등장한 70년대 80년대의 신민족주의 경향속에서 다시 등장한다고 말한다.(심재룡 2000)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열풍의 확산속에서 학자들은 ‘조화’·‘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웅변하기 위해 원효의 화쟁을 들먹이는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영태가 애국적 총화불교를 이야기하며 원효를 언급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 佐野前助は日本公使館や朝鮮高官たちお歴訪,大院君おも訪問して黙認お得たのち.(僧尼入城解禁)建白書お総理大臣以下各大臣宛歴訪して提出した。上書は翌二三日(1895.4)閣議お通過し.金弘集は国王に

각의 기운이 일어났다. 이 시기의 원효에 대한 관심도 조선총독부의 시기별 불교정책과 이에 대응하며 조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불교계·학계의 다각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1. 조선의 정체성 찾기 - 민족의 영웅(民族的英雄) 원효(元曉)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원효를 주목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보다는 식민지 배라는 당시 국가가 처한 특수상황과 관련 깊다. 그들은 식민지배 탈피의 대안으로 '조선의 정체성 찾기'에 주력하였다. 특히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불교가 해온 역할에 주목하였고, 아울러 조선불교 독자성의 발견은 곧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 예로 특히 원효가 당에 유학하지 않고도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널리 추앙받았던 점⁵⁾에 주목하⁶⁾조선'원효→조선불교의 독자성→조선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잡지에 게재된 글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자료1>그 명예스럽고 신성한 外洋遊學을 그만두고 남이 알던가 비웃던가 모르는 가운데에 오즉 저를 찾고 저를 세워 釋迦牟尼 이후에 처음으로 自我를 알고 陸象山보다 먼저 心卽理를 발명하여 上就理體名爲一心을 말하고 支那에서 유일이오, 創見이라 떠드는 賢首의 起信論疏가 '첫새배' 곳 曉公의 疏를 盜竊한 것임을 볼 때에 과연 曉公의 자아를 개벽함의 기록함을 찬송하며 兼하여 현대인의 무식함을 탄하노라...(중략)...아침에는 <오리겐>의 생각을 쫓고 저녁에는 <톨스토이>에게 쫓리며 심지어 <짜푸링>식의 滑稽의 <느릿바치>에게 쫓리나니 참 한심하기 그지업도다.(權惠奎 1920)(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자료2>"朝鮮사람에게 思想적 生活이라고 이름할만한 것이 잇기는 아모러해도 佛敎傳來의 以後事라고 합니다. 海東龍樹인 元曉가튼 大論主와 朝鮮의 오거스틴인 牧牛子가튼 大行子가 다佛敎중에서 만났습니다."(최남선 1924)

<자료1>은 『개벽』에 수록된 글의 일부로, 원효가 외양유학(外樣遊學)을 그만두고도 중국에서 그의 저작이 널리 인정받을 정도로 '조선불교의 독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의 필자는 당시 주자학의 잔재와 서양사상 침투 속에서 조

直ち奏上してゆるされ、僧尼入城解禁が発表されたのであった。(韓哲曦 1996:54-55)

5) 원효의 입당(入唐)경위는 『송고승전』·『삼국유사』 등에 기록되었다. 일반적으로 의상은 입당하였고 원효는 도중에 깨달음을 얻어 신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원효의 입당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원효가 입당하지 않았다는 기록에 초점을 둔다면, 조선불교계의 독자성·고유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원효를 부각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갖게 된다.

선인들이 독자성을 잃어가는 것을 한탄함과 동시에 주체성의 자각을 촉구하고자 원효를 그 본보기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2>는 『불교』에 게재된 글로, ‘조선역사에 대한 불교의 사상(思想)적 기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에 사상적 생활이 있게 된 것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라는 점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예로 원효를 해동용수(海東龍樹)와 대논주(大論主)로 칭송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위의 자료들은 당시 원효를 높이는 것은 ‘조선 문화의 위상’과 연결 되었으며, 원효는 조선 문화에 있어 불교가 기여한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로 논의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진1> 『청춘』11호
『위인원효』광고



<사진1>은 잡지 『청춘(青春)』에 수록된 장도빈(張道斌, 1888~1963)의 『위인원효(偉人元曉)』의 광고이다. 이는 당시 원효에 대한 관심이 지식인들의 교류 및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조선학 부흥을 위한 불교학’으로도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⁶⁾

한편 1920년대 말 일본학자인 다카하시토오루(高橋亨, 1878~1967)와 누카리아카이 텡(忽滑谷快天)은 각각 『이조불교(李朝佛敎)』(1929)⁷⁾와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

6)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춘』의 광고란에는 이능화의 『조선 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는 『청춘』(1917.07)에,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朝鮮佛敎略史)』는 (『청춘』11호.1917)에, 한용운의 『불교대전(佛敎大典)』은 (『청춘』14호)에 광고가 게재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들의 저서가 신문관(新文館)에서 광고·발행되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청춘』을 발행한 이 신문관은 최남선이 설립·운영하던 출판사로 당시 조선학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7) “조선불교가 대체로 중국불교의 일 분파에 지나지 않는 것은 조선유학이 중국유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1930)⁸⁾를 편찬하였다. 그들은 이 저서를 통해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모방으로 간주하며 일본불교의 보호가 없이는 자체적인 개혁이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 대응하고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불교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자각하였고, 원효를 언급함에 있어서도 그의 특징 가운데 이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존중되어온 원효의 『대승기신론(大乘紀信論)』주석의 사상에 점차 주목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⁹⁾

물론 이 시기 지식인들의 원효에 대한 관심이 온전히 민족주의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만은 없으며, 근대적 학문사조와 식민사관의 영향과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인지한 다음 당시 원효 관련 대표적인 저서와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2>).¹⁰⁾

<표2> 일제강점기 원효 관련자료

인물	관련 자료	내용
장도빈	『위인원효』	1917년 신문관의 『수양총서』시리즈의 첫 권. 당시로서 원효에 관한 가장 긴 64쪽 분량의 국한문 혼용 전기.
	『조선위인전』	1925년 『조선십이대위인-원효(朝鮮十二大偉人-元曉)』 원효 이전의 사회상·출세·활동·성공·원효 이후의 사회상 순으로 서술.
김영주	『제서에 현한 원효화엄소교의』	1918년 『조선불교총보』12·13집 수록.
정광진	『대정화정국사 원효저술일람표』	1918년 『조선불교총보』13집 수록.
권상로	『조선불교약사』	1917년 한국불교의 주요 인물과 사건 연대기적 기술.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1918년 한국불교의 전통소개, 한국 불교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본격적인 학술 저작.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으로부터 원효 관련 기록

8) “조선의 불교는 지나 불교의 연장으로서 선종(禪宗)같은 것도 지나 선종의 직수입에 불과하다”

9) “일본통치하에서 일본의 여러 종파가 활발하게 진출하고, 일본연구자들에 의한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한국불교는 중국불교를 받아들인 것일 뿐 독자성이 없다는 주장 혹은 운둔적이고 주술적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인 학자들에 의하여 한국불교의 의의를 밝히려는 시도로 등장한 것이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존중되어온 원효의 『기신론』주석의 사상, 즉 『기신론』에 기초한 원효의 회통사상이다.” (石井公成 2006:177)

10) 근대 잡지와 불교계 원효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표2>로 작성한 것임.

		을 옮겨 놓음.
재일조선불교유학생	『원효대성 찬양회 선언』	1926년 12월 동경에서 원효대성찬양회 발기총회 개최. 『불교』제19호(1927.1)선언문에는 원효의 위대성을 찬양, 조선적 민족의식을 원효를 통해 찾을 것을 호소함.
최남선	『조선불교』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위치』	제4장 『원효, 통불교의 건설자』 1930년7월 하와이 제1회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 발표문. 국제회의에서 한국불교의 독자성과 원효의 가치를 소개함. 원효를 불교계 흐름을 통합한 세계적 인물로 강조.
조소양 ¹¹⁾	『신라국원효대사 전』	1933년 원효의 신비적 인물상·대승보살행·탁월한 업적을 기록한 전기형식. ¹²⁾
김경주	『수도여화원효대사』	1935년.10월. 『사해공론(四海公論)』6호 수록.
허영호	『원효불교의 재음미』	1940~1942년 『불교』에 수록. (교상판석·원효 전기와 저서 해설과 목차)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평수	『원효대사』	1942년(3월 시작), 『매일신보』 소설 『원효대사』 연재.
조명기	『원효종사의『십문 화쟁론』연구』	1937년 조선불교 동경유학생회 잡지 『금강저』에 발표. 원효사상의 본질을 화쟁에서 찾은 『십문화쟁론』에 주목.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1962년 한국불교이 특성이 ‘총화불교·통불교’이며, 이 전통이 원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함 ¹³⁾ .

<표2>과 <표3>¹⁴⁾은 1900년대 초기에는 전설과 설화에 묻혀있던 원효를 재발견·

11) 다음은 대담·좌담을 실은 기사글로 조소양의 원효관을 파악할 수 있는 언급이 있어 참고 할만하다. “薛泰熙-佛敎에 잇서 洪元曉先生, 이 어룬도 卓越한 이엇지요. 元來 佛敎라 하면 元曉 以前에는 世外敎라 하야 出世間主義가 그 웃뭇 思想이엇지요. 즉 佛徒가 되려면 俗世에서, 人間社會에서 떠나 求道하야야 한다 하엿지요, 이것은 元曉大師가 나면서부터 『入世間求敎』의 原則을 세워노코, 자신도 實行하여 장가도 들고 俗世間巷에서 求道하신 분이시오. 中國 華岩經에 그러한 말이 씨엿다 하지만 그리고 儒敎社會에 잇서서는 우리 祖上인 新羅 때 薛聰先生의 자취가 크다고 봅니다. 儒敎를 國學으로 만든 이가 이 어룬이엇지요.”(『半島英傑』을 論함 -史上의 著名한 英主, 學者, 名將들-, 『삼천리』제6권 제11호, 1934.11.01.).

12) 조소양 『신라국 원효대사전 병서』에서 원효의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원효는 세치의 혀를 써서 삼대(氣,時,空)를 손바닥 위에서 늘렸다줄였다 하며 한자루 붓을 휘둘러서 삼대를 마음속에 죽였다살렸다 하고,...(중략)...사람은 다 누에입이며 스님은 그 중의 나비로다.” (김지건 1987:130).

13) 이 글을 해방 후의 글이지만, ‘총화불교’ ‘통불교’의 강조는 일제기에 조명기가 『십문화쟁론』연구 등의 글의 연장선상에서 정립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명기의 원효관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자료라고 여겨져 <표2>의 분류에 포함하였다.

14) 참고로 고영섭은 원효학 연구를 편의상 네 시기 ①1910-1960년대 과중기 ②1970년대 맹아기 ③1980년대 성장기 ④1990년대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그 중 ①1910-1945년 해방 전까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 (고영섭 2001:173-187)을 참조하였으며, 이 논문은 19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원효의 이해와 연구진행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표3> <과중기 중> 1910-1945 원효 연구의 특징.

발굴하는 시기의 자료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①장도빈은 민족적 자존을 세우기 위해 “원효는 동방의 일서성 이로다”는 식의 찬양조로 『위인원효』를 저술했다. ②권상로와 ③이능화는 대표적 근대불교서인 『조선불교약사』·『조선불교통사』에서 『삼국유사』와 『송고승전』등 원효전기로부터 기록을 옮겨 정리하였다. ④조소앙은 원효의 생애·사상사를 다루며 업적을 찬양한 『신라국원효대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외에도 ⑤재일조선불교유학생들은 원효대성찬양회를 조직하고 선언문을 통해 원효의 위대성을 언급하며 조선적인 독창성과 민족의식을 그를 통해 찾을 것을 호소하였다. ⑦조명기 이후로는 ‘조화·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웅변하기 위해 원효의 화쟁사상을 언급(심재관 2001:112)하는 경향의 글이 주를 이루게 된다.

<표2>에 제시된 자료 중 ‘조선의 정체성과 원효’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글은 ‘통불교(通佛敎)’라는 언급으로 원효의 불교를 처음으로 개념화한¹⁵⁾(김광식 2002:258) ⑧최남선의 글이다. 이 글은 최남선이 서양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대외적인 영향력을 의식하여 쓴 것으로, 원효를 조선과 연관하여 세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시키고자 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통불교(通佛敎)’의 건설자 원효(元曉)

최남선은 1930년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제 1회 범태평양 불교대회에서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¹⁶⁾를 발표하였다.

자료		특징
전기류	장도빈(1917), 『위인 원효』 조소앙(1933), 『신라국원효대사전』 이광수(1942), 『원효대사』	①원효 재발견기 원효이해의 계몽기 ②전설·설화에 묻혀있던 원효를 역사 속에 재조명.
연구류	정광진(1918), 『대성화정국사원효저술일람표』 김영주(1918), 『계서에현한 원효『화엄소』교의』 최남선(1930),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의 지위』 조명기(1937),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연구』	①설화속 서민적인 원효에서 저술·사상가로서 위상 확립. ②원효의 현존 저술이 확정. 핵심사상으로 총화·화쟁담론이 담긴 『십문화쟁론』등 이 연구되기 시작함.

15) “원효가 갖고 있는 불교적 성격을 근대불교에서 최초로 개념 정리한 것은 유의할 내용이다. 원효에 대한 성격과 정리는 고려시대에는 있었지만 근대기에서 집중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 글이 최초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원효연구에 있어 기념비적 의의를 갖게 된다.” (김광식 2002:258).

16) 최남선이 저술한 팸플릿 크기의 『조선불교』는 불교청년이었던 최봉수에 의해 영어로 옮겨져 1930년 7월 범태평양 불교청년대회에 제출되었다. 영문제목은 『korean buddism and her position in the cultural history of orient』 영문으로 소개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불교 소개서

이 글은 참석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서구인들에게 조선불교 문화와 이를 대표하는 원효의 사상을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미가 있다. (한영우 2003:111) 이 후 원효는 조선불교의 전통으로 언급되는 ‘회통불교’를 정립한 인물로 이상화되어 위치를 굳혀 왔다. 아래 <자료3>은 이 글의 제 4장 「원효, 통불교의 건설자」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3>半島の 佛敎人이 東方佛敎의 中心地인 支那에 가서 혹 들어나게 혹 숨어서 支那人과 共同作業으로 敎理의 發展에 貢獻한 것도 母論 작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나 朝鮮이 佛敎에 가지는 眞正한 자랑과 獨特한 地位는 따로 朝鮮의 獨創의 上에 있을 것이다. 곧 佛敎의 眞生命을 透徹히 發揚하여 불교의 救濟의 機能을 充足히 發揮하여 理論과 實行圓滿히 融和 하야진 「朝鮮佛敎」의 獨特한 建立을 成就하였습에 있다. 印度及 西域의 緒論의 佛敎, 支那의 各論의 佛敎에 對하여 朝鮮의 最後의 結論의 佛敎를 建立하였습에 있는 것이다.(최남선 1930)

최남선은 불교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인도불교는 서론·중국불교는 각론·그리고 한국불교는 특히 원효에 와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며, 원효를 조선과 결부시켜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로 격찬하였다. 이 글에서 ‘통(通)·전(全)·종합(綜合)·통일(統一)·신(新)’ 등의 수식어로 원효의 불교를 강조한 후로(조은수 2004) 원효는 통합이 요구되는 정치적 상황이면 그에 부합하는 상징적 인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¹⁷⁾.

한편 이 같은 ‘원효→통불교→한국불교의 정체성’관련 논의¹⁸⁾중 통불교의 연원이 일본 메이지(明治)시대 불교도들이 자주 쓰던 ‘통불교(通佛敎·Tsu bukkyō)’라는 용어에서 빌려온 개념이라는 견해¹⁹⁾가 있다. 아래 <자료4>는 키틀러(Ketelaar)의 저서에 소개된 메이지시대 통불교 담론자들의 논리이며 <자료5>는 최남선의 글이다.

임.

17) 원효사상의 특성이자 한국불교의 특수성과도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최남선의 ‘통불교’ 언급이 일제기 원효 부각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18) 다음 자료에 상세히 논의·서술되어 있으므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①(조은수 2004) ②(심재룡 2000) ③(John Jorgensen 1997) ④(김희성 2001) 『한국불교 특성론과 한국불교의 연구방향』, 『한국종교연구』3집, 서강대종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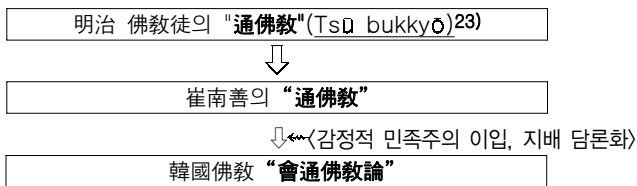
19) 키틀러는 “이 (최남선의 통불교)는 단지 일본의 통불교담론, 특히 일본불교가 불교사의 정점에 있다는 島地噓雷의 이론을 재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남선이 원효의 십문화쟁에 대해 강조한 바는, 凝然(1240~1322)이 일본불교의 독보적 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八種綱要』에 통불교의 개념을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고 하였다. 그리고 高田道見의 『通佛敎安心』라는 저서에서는 신도(神道)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와중에서 메이지불교도들이 <진화론적불교관 + 화합적불교관 ⇒ 새로운 불교관 창조>를 시도 했다고 하였다.

<자료4>“불교의 가르침이 수세기를 거치며 점차 더욱 더 정치해지는 분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다음으로의 발전단계의 문턱에 서있으며, 불교가 보다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 통불교를 예비하는 단계로 진입해 있다”²⁰⁾

<자료 5>“①分列로서 統一에,派別로서 和會에,屬性分化的 絶顛에 달한 當時의 佛敎는 새로히 一生命體로의 組織과 및 그 힘잇는 表現을 要求하였다.”<(중략)>그리하고 이 ②最高統一,最後完成으로서의 新佛敎는 그것을 特權으로서 一般所有로 轉化함으로써 그 實現의 第一歩를 삼았다…(중략)…③「釋迦로서 元曉에」는 요하건대「創作에서 分化」와「分化로서 歸一」을 의미 함이었다“

최남선이 일본불교도들 사이 언급되던 통불교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분화에서 통일로의 발전상태+통일·원융 지향의 화합적 측면⇒통불교 완성’이라는 진화·발전론적 논리전개의 유사성을 통해 양자 간의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¹⁾ 그리고 아래 <표5>는 일본 메이지불교도들의 통불교담론이 최남선의 통불교로 이어지고, 여기에 민족주의적 감정이 개입 진화회통불교라는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맥락을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표5>통불교(通佛敎)개념의 연원²²⁾



20) "the teaching of Buddhism, having undergone finer and finer divisions over the centuries, was on the threshold of its next evolutionary stage. Buddhism was ready to "return... to the simple."to become, in Takada's terminology, a "United Buddhism"(Tsū bukkyō)", [Takada D ken, 『Tsū -Bukkyō anshin』, pp. 2-7; James Ketelaar, Of Heretics and Martyrs in Meiji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184-86, pp.190-193쪽 재인용. 번역문은 조은수의 위와 같은 논문 인용.]

21) 이를 간략히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4>메이지불교도와 최남선의 통佛敎.

진화론적 불교관 (+)	화합론적 불교관 (⇒)	새로운 불교관 창조
分化 → 統一	①創作→ 分化→歸一 ②統一·和會·一生命體	通佛敎·新佛敎 ¹⁾
印度及西域의 緒論的 佛敎 (創作)→支那의 各論的佛敎(分化)→朝鮮 最後의 結論的佛敎(統一)		

22) 각주 18)에 언급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도표로 재정리한 것이다.

23) 타카다 도오젠(1904) 『通佛敎安信』, 이노우에 세이쿄(1905) 『最新研究通佛敎』에서 통불교가 언급되었다.

위와 같이 본다면 최남선의 원효 이해 및 이후 한국불교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당시 근대적 학문조류의 영향과 시대적 배경이 맞물려 재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통불교라는 용어의 연원과, 그리고 일본불교와 최남선을 잇는 사상적 궤도를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우수성을 선전하고자 통불교를 언급한 최남선의 발표는 원효가 종합주의적 인물로 한층 부각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이후 원효는 ‘통(通)·화(和)’의 상징인물로 확대 해석 되어 통합이 요청되는 시기마다 정치·종교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²⁴⁾.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원효이해는 피식민지하의 국가와 민족자존 혹은 근대의 다양한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제2장 식민동화정책(植民同化政策)의 표상(表象)으로서의 원효(元曉)

일제강점기 시대가 요구한 원효상은 “신라”에 주목한 식민동화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원효와 관련된 유물로 발견된 1)고선사 서당화상비와 2)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통해 그 의도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일제의 신라고적조사(新羅古蹟調査)와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의 발견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경주지역 고적조사를 통해 신라의 유적에서 그들 선조의 원류와 자취를 확인하고 당시의 식민지배는 일본 고토(古土)의 회복임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이순자 2009:3) 총독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고적조사는 평양 일대의 낙랑유적과 임나일본부설을 증빙할 수 있는 신라·가야지역 발굴에 집중되었다.(이선복 1988:228) 이는 일제가 식민지배 정당화의 근거로 삼은 일선동조를 유적·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작업으로, 그 결과는 발굴품의 해석서나 역사서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인들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로 출토된 신라의 유산에서 자주독립의 의지를 발견하고 조선고유의 신성(神性) 문화를 감지했다.²⁵⁾ 그리고 이러한

24) 그 예로 원효의 통·회통사상은 남북통일의 관점에서도 조명되었으며, 이는 1987년 국토통일원이 후원한 국제학회인 『聖師元曉대심포지움』과 『원효연구논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5) 이 저서(황중연(2008), 『신라의 발견』)는 일제시대 재창조된 신라의 역사적 실체와 의미에 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유용하다.

민족심리는 일제가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작업에 더욱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염두하며 서당화상비의 발견이 갖는 의미를 ‘일제의 식민동화 정책의 의도’라는 맥락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경주지역에서의 비편 발견⇒신라고적조사와의 관련성, 비 발견 후 일본 학자들의 논의 방향(상대일조관계연구(上代日鮮關係研究)⇒일조동조(日鮮同祖)), 원효의 아명 서당(誓幢)과 군호관련설⇒화랑⇒호국>의 발견에 착안한 것이다.

1) 고선사(高仙寺)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의 발견

고선사서당화상비는 원효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설중업(薛仲業)이 779~780년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원효를 추모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권력자인 김언승(金彦昇)의 후원을 받아 건립한 것이다. 이 비는 원효의 일대기를 정리한 최고(最古)자료로 현재 원효의 생애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사료이다.(한국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자료 6>은 1968년 2차로 서당화상비의 상반부 파편을 직접 발견한 황수영의 『신라서당화상비의 신편(新片)』의 첫머리 글이다.

<자료 6> “誓幢和上이란 元曉大師를 가르친다. 그의 羅代碑 下半에 해당하는 斷石 三片은 一九一五年 五月 경주 東北方인 月城郡 內東面 暗谷理 上淵의 溪畔에서 발견된 바 있었다. 그 직후 이들 碑片은 서울로 운반되어서 景福宮回廊에 진열되었고 일인학자에 의하여 소개되었으며 또 『조선금석문총람』이나 『원효전집』 등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비문의 해독은 三國遺事 第四 元曉不羈條와도 대조되어서 그의 행적이 한층 밝혀지기도 하였다.”(황수영 1970)

<자료6>은 서당화상비의 1차 발견 당시의 정황에 관한 내용이다. 1915년 5월 9일 경주 암곡리에서 비석의 하반부 3조각이 발견되어 일본학자들에 의해 판독된 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시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금석문을 수집·정리하던 जु니 이치로(中理 伊十郎)에 의해 비편이 처음 발견되었고, 이 비편은 당시 경복궁 근정전의 회랑으로 옮겨져 진열되었다. ‘총독부 직원에 의한 비의 발견→경복궁회랑에 옮겨 진열→일본학자들에 의한 소개’로 이어지는 경위를 보아도 이 비의 발견이 당시 총독부의 식민정책의 일환인 경주 유물발굴조사사업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아래 <표8>은 일본학자들의 서당화상비에 관한 연구 논문 및 저서를 정리한 것이

다.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 2001:221-222, 학술연구정보서비스<리스포유>)

<표6> 일본학자의 서당화상비 관련 연구

시기	논문
일제 시기	小田幹治郎, 『新羅の名僧元曉の碑』, 朝鮮總督府, 1920.04.
	岡井愼吾, 『『新羅の名僧元曉の碑』を讀みて』, 朝鮮總督府, 1920.06.
	葛城末治, 『新羅誓幢和上塔碑に就いて』, 靑丘學會, 1931.08.
	葛城末治, 『朝鮮の金石文より觀たる上代の日鮮關係』, 朝鮮の教育研究 No.915,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6.
광복후	八百谷孝保, 『新羅僧元曉傳攷』, 『學報』38, 大正大, 1952.
	本井信雄, 『新羅元曉の傳記について』, 『大谷學報』41-1, 大谷學會, 1961.09.
	저서
총독부관련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1919.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京城: 大阪屋號書店, 1935.

위의 <표6>에 소개한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학자들의 초기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오다 미기지로우(小田幹治郎)(1920)는 『신라의 명승원효의 비(新羅の名僧元曉の碑)』에서 서당화상이 원효임을 밝히고 발견된 비의 원문을 소개하고 기록을 해석했다. ②岡井愼吳(1920)은 『新羅の名僧元曉の碑』を讀みて에서 비문에 기록된 설총업관련 내용에 주목하여 『속일본기』와 비교하며 서술하였다. 해방 후 연구된 글로는 ③팔백 곡효보(八百谷孝保)(1952)은 원효와 관련한 금석문 및 문헌을 정리하고 『송고승전』이 설화적인 데 비해 『삼국유사』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았다. ④모토이 노부오(本井信雄)(1961)는 조선총독부(1920)의 『조선금석총람』과 가츠라기 스에지(葛城末治)(1935)의 『조선금석고』간의 판독상 차이를 지적하고 원효의 생애에 관한 논문과 한·중·일의 사료 및 연보를 정리하였다.

한편 가츠라기 스에지(葛城末治)(이하 가츠라기)는 조선금석문 관련 대표저서인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서 서당화상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언급하였다. 이 각각의 쟁점은 당시 시대상황과 저자의 의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2)일본학자의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 소개 -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

서당화상비의 내용이 수록된 대표적인 저서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과 가츠라기의 『조선금석고』가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조선금석고』는 가츠라기가 고대(낙랑군 및 삼국시대)와 고려의 금

석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전체 금석학 총설을 엮어 정리한 저서이다. 이 저서에 수록된 글 「新羅誓幢和上塔碑に就いて」에서 주목하는 쟁점은 일제의 고적조사의 기본 의도인 일본과 신라의 관계[일선동화(日鮮同化)]에 대한 언급으로,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대일선교통사(古代日鮮交通史)의 의의

저자는 원효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설중업(薛仲業)이 ‘대력(大曆, 766~779) 봄에 바다를 건너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²⁶⁾는 비문의 기록은 일선교통사상(日鮮交通史上)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는 서당화상비에서 이와 같은 기록을 발견함으로써 『속일본기』의 ‘설중업이 779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본왕으로부터 종오품하(從五品下)의 일본 관직을 받고 이듬해 귀국하였다’는 기록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진 2〉 가츠라기 스에지(葛城末治)의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1931)에 수록된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사진



가츠라기는 『조선금석고』 이외에 『朝鮮の金石文より觀たる上代の日鮮關係(葛城末治 1936)』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 있는데, 저자는 문화·풍속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일본과 조선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⁷⁾.

26) ㉠[비문기록]:“大曆之春、大師之孫、翰林字翰林字仲業□使滄溟□□日本彼国上宰因□語…(후략)”
과 이에 관한 ㉡[葛城末治의 見解]:“元暁の孫の仲業が日本に使したと見えてるるか、此の事が恰も『続日本記』卷十三五(光仁天皇実亀十一年正月の条に)出てるから頗る感興お惹き且つ日鮮交通史上に的確なる光明お齎するものであり、又続日本記の記事が正鵠であることお証拠立てるものである。”

27) 葛城末治(1929) 도 古代 日鮮관계를 주목한 연구로 각주 2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②비문의 일본문자와 고대 일본 국호(國號)관련 의의

가즈라기는 서당화상비에 새겨진 일본문자와 고대 일본국호의 연관에 대하여 가장 주목하고 있다. 비문에 있는 일본문자에 대하여 그는 “당시 외국금석문에 일본문자가 있는 예는 없었다”고 하며, “천년 이전의 조선금석문에 일본의 문자가 새겨졌다는 것은 일본의 국호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²⁸⁾라고 언급하였다.

이 무렵 총독부의 정책은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고대의 일선관계를 파악하고, 이로써 신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교류와 동질성을 증빙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총독부에 소속된 직원이자 고적조사에 깊이 관여하였던 인물인 가즈라기가 수행한 연구를 일선융화의 근거마련을 위해 시도한 작업의 일환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²⁹⁾.

3)원효의 아명(兒名) ‘서당(誓幢)’과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군호(軍號) ‘서당(誓幢)’

서당화상비의 서당이라는 명칭은 원효의 아명이다. 가즈라기는 『삼국사기』에 당시 ‘신라의 군호(軍號)에 서당(誓幢)이 있었다는 기록에 착안하여 원효를 군직(軍職)에 연관된 인물로 유추하고 있다.

<자료7>“우리들은, 本文의 題主人 誓幢和上이라는 名稱에 대하여 日頃の 疑懐는, 誓幢이란 新羅의 軍號로써, 『三國史記』卷40 職官志武官에 ‘九誓幢 眞平王五年始置 但名誓幢’이라 있다. ①和上이 誓幢의 軍職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誓幢和上이라 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그렇다면 ②朝鮮의 僧軍의 起源은 멀리 新羅時代에 端을 發하였던 것 같다. …(중략)…誓幢이란 名稱은 新羅의 軍號인데, 무슨 까닭으로 元曉法師를 誓幢和上이라 하는가, 僧兵의 濫觴은 新羅時代에 있는 것이 아닐까³⁰⁾.”

이후 일부 일본학자들은 서당을 군호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며 (원효→군인→화랑)⇒

28) ㉠[비문의 기록]: ‘야まと・ヒノト・ニホン’ ㉡[葛城末治의 見解]: 此の卑に就いて注意を惹くのは碑文の中に日本の文字が見えてることである。当時外国金石文の中に日本の文字があるのは、本碑を措いて外にはない。日本なる文字には ‘야まと・ヒノト・ニホン’等の音・訓読みがあり…(중략)…一千年以前の朝鮮金石文の中に日本の文字が認められてるのは日本の国号を研究する上に貴重な資料である’.

29) 각 개별 쟁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검토 후 보완 할 것임.

30) 予輩は、本文の題主たる誓幢和上なる名稱に就いての、日頃の疑懐、誓幢とは新羅の軍号であつて、三國史記卷四十職官志武官に『九誓幢。一日。綠衿誓幢。眞平王五年始置。但名誓幢』とあり。和上が誓幢の軍職お帯びてゐるから誓幢和上と稱したものと思はれる。果して然らば朝鮮の僧軍の起源は、遠く新羅時代に端お発したの?如くである。

호국'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³¹⁾ 이 논의의 시초가 일제강점기의 일본학자 가즈라기의 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김영태 1980)³²⁾ ①서당을 군호(軍號)로 보는 것과 ②승병의 기원을 신라까지 소급한 것은 식민정책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효를 화랑으로 부각시키는 의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³³⁾. 서당화상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신라와 조선의 관계나 화랑의 개념 등이 언급되는 것은 이 비가 단순히 원효의 생애를 기록한 자료로서의 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2. 이광수(李光洙)의 '화랑(花郎)' '신라인(新羅人)' 『원효대사(元曉大師)』

이광수의 장편 역사소설 『원효대사』는 194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원효를 충군애국의 정신을 체현한 '신라의 영웅'·'화랑 원효'로 묘사한 것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불교정책

이광수가 소설 『원효대사』를 연재할 무렵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며 모든 종교

논문 및 저서	원효의 (誓幢과 花郎과의 관계)
葛城末治,(1935) 新羅誓幢和上塔碑 に就いて	『三國遺事』에 軍號로 '誓幢'이라는 기록이 있음 →원효가 군인이었을 가능성 추측 →조선 僧軍의 기원이 新羅시대에서 發한 것으로 추측. ¹⁾
八百谷孝保,(1952) 新羅僧元曉傳攷	서당화상비 건립자가 音里火停의 三千幢主로 군직이다. + 誓幢은 軍號이다. + 아버지 출신이 六頭品 奈麻이다. → 당시 신라사회에 성행한 귀족의 수양 결사인 花郎集會과 관련을 추정. 원효를 화랑과 연관짓는 데 까지 논리 확장.
本井信雄(1961) 新羅元曉の傳記 について	위 학자들의 견해에 덧붙여『三國史記』太宗春秋公條에 기록된 唐 蘇定方이 新羅 金庾信에게 보낸 難讀그림을 元曉가 解讀→軍職에 종사 추정.
논의의 전개	(원효→군인→화랑) ⇒ 호국

31) <표7>일본학자들의 서당과 군직에 대한 견해-서당화상비문 기록에 근거한 원효의 화랑설 추정

32) 김영태는 『원효의 소명 서당에 대하여』에서 “元曉의 小名 ‘誓幢’과 軍號 ‘誓幢’을 관련있는 것으로 본 見解가 나오게 된 것은 高仙寺誓幢和上碑의 一部가 당시 日本總督府 官員에 의하여 발견된 뒤이며, 이를 최초로 언급한 論文은 葛城末治의 『新羅 誓幢和上塔碑に就いて』일 것”이라 추정했다.

33) 원효와 승병을 연관 짓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김태흡의 글(金太洽 1940)에서도 볼 수 있다. “옛날에 조선의 승녀는 다른 나라의 승녀들과 달라서 군사(軍事)에 종사한 이가 많았다. 대사는 종교가요 철학자요 도인이었것마는 군사에도 유조한 일이 있었으니 수수끼기와 같은 글자푸리로 서 수천 사람을 살린 것이 있다.” 이 내용은 원효가 소정방이 보낸 그림을 해독한 일화에 관한 것이다.

에 황민화정책을 강행하였던 시기이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총력전체제로 전환하여 불교계에도 수탈을 강화하며 전쟁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의 불교계는 점차 학도병 징집·군수물자헌납·시국강연·위문단 파견과 같은 활동으로 전시 체제에 동조했다.

아울러 일제는 사상적인 동조까지 이끌어 내기 위해 ‘일선동조동근론(日鮮同祖同根論)’과 ‘내선일체’의 논리를 주입하고자 했다. 전쟁 합리화를 위해 조작된 불교의 교리는 ‘몰아의 정신’이나 ‘호국불교’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김순석 2003:215) 아래 <자료8>은 『불교』20집(1940.1)에 실린 「내선일체와 불교도」라는 글로 이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8>내선일체(內鮮一體)와 불교도(佛敎徒)

특히今次事變을 契機로하여 반도민족은 제국의 確乎不動의 大陸政策中, 공동의 이상, 공동의 사명, 공동의 운명을 감득하고 황국신민으로써의 국민의식이 ??해야 진실한 내선일체를 육망하는 사상동향과 생활태도를 ?화진전하여왔다. 따라서 佛敎徒도 황국신민된 신념하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思想善導에 많은 裨益을 주었으며 ①同祖同根의 내선양민족의 渾然一體의 意識을 培養하여온 無形의 功績이 참으로 두렷하였던 것이다. 我佛敎가 東來한 以來 사회문화에 공헌을 끼친 점에 대하여 여기 새삼스레 말할 것이 없지마는 그 시대시대의 사상동향의 기?이 된것은 불교이며 지도자가 불교도이었다. 聖戰四載에 新東亞建設의 曙光이 四海에 빛나는 此際에 불교도의 임무와 사명이 큰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은 ②시야를 넓히면 전세계를 佛敎國化로 만들고 좁좁히면 東亞一帶를 제국의 신동아건설의 大理想에 應하여 佛陀의 精神에 潤化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것이다. 이 大理想을 目標로 하고 邁進함에는 于先 統後의 국민으로서 堅忍不拔의 정신을 확고하고 황국정신을 宣揚할 것이며 朝鮮에 있어서는 반도민족이 일층 황국정신을 체득하고 내선일체의 원리를 周知하는 것이 重要問題이다. 따라서 아 불교도는 이모든 문제의 요건중의 요건 민중의 의식을 陶冶하고 思想를 整齊하는 重大한 課題를 負擔하여야 한다. 이 과제를 실천함에는 ③제일로 민중과 친밀히 접촉할 기회를 많이 만들것이며 그 기회마다 대이상의 정신을 납득케하고 제이로는 그 납득한 정신을 표현케 할 방법을 講究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이 附合하도록 實踐하는 것이 우리불교도 할 일의 捷徑의 하나이다. 宗教報國으로써 할 일은 참으로 넓다. 더욱 국교인 아불교로서는 그 범위가 광범하고 중차대하다. 그우에 朝鮮佛敎徒는 「內鮮一體」의 重荷를 加添하였으니 再三倍 覺悟가 필요함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위 글의 요지는 ①조선과 일본은 동조동근(同祖同根)이므로 조선불교도가 내선일체의 의식을 배양하여 전쟁과 대동아공영건설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임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②동아시아의 공통된 종교가 불교이며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서양과의 전쟁에서 승

리해야한다'는 논리로 신동아건설을 위한 동질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김순석 2001:142) 친일불교 인사들은 이러한 논리를 ③민중의 무의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하는 기초 작업으로 주로 강연·교육을 활용하기도 하고 위인전기·영웅소설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신문연재라는 대중성의 효과를 염두하며 이광수의 『원효대사』에 묘사된 원효상(元曉象)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신라 호국(護國)의 상징이 된 원효- '화랑(花郎)'·'신라인(新羅人)'

『원효대사』 집필 의도와 관련하여 이광수를 친일인사, 혹은 불가피하게 친일을 표방한 민족정신의 대변자로 보는 측면으로 의견이 나뉜다.

<자료9> “춘원이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집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다. 그 소설이 연재된 지면은, 한반도 식민 통치의 총지휘소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였다. 조선총독부는 그 전쟁을, ‘대동아 공영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선전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새파란 청년들과 군수 물자를 강제 동원해 전쟁터로 실어 보냈다. 그때, 조선 총독부는 왜 춘원 이광수로 하여금 『원효대사』를 연재소설로 쓰게 했을까. 그 소설 속에서, 신라의 김춘추 김유신이 일으킨 삼국 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로 하여금 신라 젊은이들을 향해 ‘성스러운 전쟁에 가까이 몸을 던져라’하고 부르짖게 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가까이 참여하게 충동질하려는 것 아니었을까.”(한승원 2006)

<자료10> “일제가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원효대사』를 연재케 한 속셈은 기실 원효가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충성한 불요불굴의 정신을 비상 체제하의 한인에게 알려 이른바 국가 총동원의 선전성을 노린 것이었으나, 선생은 이를 역이용해 한민족의 정기를 불려 일으키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았다 해야 마땅하다”(이광수 1979:600)

<자료9>는 한승원이 그의 소설 『소설 원효』에서 언급한 것으로, 그는 이광수의 『원효대사』 집필의도를 일제의 내선일체를 선전하고 전쟁동원을 부추기는 작업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면에 <자료10>의 이병주(李丙疇)의 언급처럼 이광수의 『원효대사』 연재는 민족정신의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파악한 견해도 있다.

이처럼 이광수의 집필의도에 대한 논의는 그의 행적을 친일일변도로 보는 관점과 민족주의적 태도로 보는 관점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양측의 관점을 명확히 규명하기 보다는 이광수가 원효를 ‘신라인’·‘화랑’으로 부각하여 묘사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 의도를 넘어 당시 시대가 요구한 중요한 코드였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라라는

고대 상징국가의 재현, 그와 동시에 국가와 밀착된 상징인물 창조의 필요성이 『원효대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아래 <자료11>은 이광수의 『원효대사』의 서문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의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11>“나는 언제나 원효대사를 생각할 때에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이 어글어글하고 웃고름을 느슨히 매고 갓을 앞으로 수긋하게 쓰고 휘청휘청,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이것은 신라의 화랑의 모습이요, 최근까지도 우리 선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중략)…원효대사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이러한 성경인데다가 화염경으로 더욱 그것을 뒤아서 빛낸 것이었다.…(중략)…그는 국민으로는 애국자요, 승려로는 높은 보살이다.…(중략)…나는 이 소설에서 원효를 그럴 때에 그의 환경인 신라를 그렸다. 왜 그런고 하면, 신라라는 나라가 곧 원효이기 때문이다. 크게 말하면, 한 개인이 곧 인류 전체이지마는, 적어도 그 나라를 떠나서는 한 개인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효는 신라 사람이었나와, 신라 나라사람이었고, 중이었던나와, 신라나라 중이었다.…(중략)…나도 원효와 불가분의 것으로 당시의 신라문화를 그려보려 하였다. 고신도(古神道)와 거기서 나온 화랑(花郎)과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또는 우리말에 품겨있는 뜻으로 당시의 사상과 풍속을 상상하려 하였다.…(중략)…나는 독자가 이것을 웃어 버리지 말고 연구의 대상을 삼아서 우리의 역사와 성격을 천명하기를 바란다.(이광수 1970:1-2)

<자료12>화랑들은 십오륙세가 되면 어깨에 활과 살통, 허리에 칼 하나를 차고 집을 떠났다. 적어도 일 년 사철을 산에 들어 수행을 하니하고는 화랑은 못되는 것이었다. 원효는 태백산 개골산을 두루 돌아 고구려의 삼각산, 낭림산까지 돌아왔다. 그러는 동안에 담력을 세우고 산신께 발원하여서 큰 뜻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춘추며 유신이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통일할 것을 맹세하고.…(중략)…산에 드는 화랑들은 꿈을 만나면 꿈과 싸우고 범을 만나면 범을 잡아야 말았다. 바위 밑에서 자고 시냇물에 몸을 씻고 삼신당에서 기도하였다.(이광수 1970:56)

<자료11>의 신라가 원효이고 원효가 신라라는 언급은 이광수가 원효를 민족의 공동 운명체의 상징인 신라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원효를 화랑의 풍류와 회생·충효사상을 배경으로 한 ‘국가적 인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료12>의 예와 같이 이광수는 『원효대사』의 곳곳에서 화랑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소설속의 원효는 어릴 적 조부 밑에서 자라며 내을신궁(奈乙神宮)에서 국선도를 익히고, 출가 후 승려로 생활하지만 전쟁의 불안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국가적 인물로 묘사된다. 소설속의 원효는 불자(佛子)이기보다는 신라 고유의 신도(神道) 화랑정신 등 신라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격체에 가깝다.

이처럼 화랑과 원효를 연관시키고자 한 이광수의 의도를 두고, 젊은 독자들로 하여금 ‘충(忠)→호국(護國)’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여 전쟁동조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화랑도가 강조한 것이 바로 호국정신이라는 점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원효대사』에서의 원효상(元曉象)은 그가 실제로 신라 당시에 호국을 주장했는지에 관한 고증 없이 일반인들에게 국가와 불가분한 인물로 인식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서당화상비의 발견과 이광수의 『원효대사』의 연재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일제강점기 ‘신라’가 갖는 의미와 활용가치가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일반적으로 인식된 신라의 개념이 사실적 재현이기보다 근대적 담론과 권력지배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관념일 수 있음과, 원효 또한 시대적 산물로 그려져 신라의 표상, 즉 국가적 인물로 부각된 측면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일본불교(日本佛敎)의 침투(浸透) - 대처(帶妻)와 파계(破戒) 문제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들의 반발을 해소하고자 포교활동에 있어서도 동화정책을 구상하였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바도 그들이 원효라는 인물에게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질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조선포교와 관련하여 일본불교 대표종파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종조 신란(親鸞, 1173~1262)(이하 신란)과 원효의 연결고리³⁴⁾를 살펴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확산되었던 대처(帶妻)문제와 관련지어 원효의 파계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민중승(民衆僧)·파계승(破戒僧)으로서의 신란(親鸞)과 원효(元曉)

정토진종은 가마쿠라(鎌倉)시대 신란에 의해서 창시된 정토종(淨土宗)의 일파로, 아미

34) 신란과 원효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광수의 문학·사상적 배경자료를 고찰하던 중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1900~1920년대 일본에서는 문인·철학자를 포함한 사상계 전체에 가마쿠라불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광수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시기(1904~1910과 1915~1918)는 일본문인들 사이에서 신란과 니치렌을 소재로 한 문학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당시 일본에서는 원효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때면 신란을 거론할 때 사용하던 ‘비승비속’이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와다 토모미 2000:213)

타본원의 순수타력을 중시하고 재가불교를 지향하는 등 민중과 밀착된 종파였다.(조승미 2007:189) 1877년 정도전종의 대곡파(大谷派)동본원사가 포교사를 파견한 이래로 일본불교의 많은 종파들이 조선 각지에 일본사찰의 별원과 포교소를 설립하였으며(김순석 2001), 이후로 해방 전까지 조선의 교육·종교·문화계에 깊이 관여하여 많은 조선의 지식인 및 승려들도 이 종파에 예속되었다.

이 종파의 종조(宗祖)인 신란은 귀족승려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하층민의 구제라는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추구한 인물로, 이 점은 원효가 추구했던 현실 개혁적인 성향과도 흡사하다. 아래 <자료13>은 신란과 원효의 유사성을 언급한 글이다.

<자료13>“필자가 원효의 정토사상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삼국유사』나 『송고승전』에 나타난 그의 생애를 알게 됨으로써 시작했다. ①원효는 요석궁의 과부인 공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는 소성거사라 자칭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염불신앙으로 민중을 교화하였다고 한다. ②일본의 신란도 역시 帶妻하고 많은 자제를 두었고 이마타불 신앙을 가지고 민중을 교화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생애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신란은 원효보다 약 500년 후의 사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정신은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후지요시나리 2001:14)³⁵⁾

후지 요시나리(藤能成)는 신란과 원효가 파계승이자 민중승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실제로 신란은 자식을 낳고는 우독(愚禿)으로 원효는 소성거사(小性居士)로 자칭하며 속인처럼 살았다는 점에서 파계승의 면모를, 신란은 아미타불 신앙으로 원효는 무애무와 염불로 민중을 교화했던 점에서 민중승의 면모를 대비해 볼 수 있다.

아래 <자료14>는 친일포교승려로 대표되던 김태흡의 『고승설화-원효대사』의 일부로, 원효의 정토사상이 신란에게 전해지고 그 이후로 일본불교가 후대로 확장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³⁶⁾고 언급하고 있는 글이다.

<자료14> 대사는 조선 불교계에 있어서 력사상으로 보아서 綜合的으로 불교의 창시자요 鼻祖가 되시는 것이니 華嚴宗도 그러하고 淨土念佛宗도 그러하고 三論宗도 그러하고 法華宗과 眞言宗도 그러하다. 따라서 대사의 창승불교 사상은 일본의 불교 淨土眞宗의 개조 親鸞上

35) 자세한 내용은 원효와 신란의 신관을 비교한 (후지 요시나리(1991) 『원효와 신란과의 신관 비교』, 『제4회 한국철학자연합대회보』, 한국철학회)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6) 실제 정도중계의 초조(初祖)인물들이 중명(宗名)의 근거로 원효를 인용할 정도로 일본 정도사상에 있어 원효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후쿠시 지닌 1999:77)

人에게 淨土眞홀러서 동불교창승 불교의 백화란만을 이루고 그 열매淨土眞맺어주게 하셨다. 그리고 대사는 조선의 불교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선 에게 력사상에도 위대한 공적을 끼쳤으니 불교의 정신에게는 대는 것독당하셨고 유교의 정신문화로서는 대사의 아드님인 설총선생이 담당하셨다.(김태홍 1940)

위의 글들은 원효와 신란의 생애와 사상의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³⁷⁾ 당시 친일포교활동에 주력하였던 인물들이 비승비속과 대처식육이라는 ‘신란과 원효의 동질성’을 필요로 하고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를 확장하면 이 점은 일본 불교의 침투와 함께 조선불교계에 확산되었던 대처승 문제와도 맥이 닿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원효의 파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대처승(帶妻僧)의 확산과 원효의 여성관(女性觀)

식민지 이후 논란거리가 된 많은 문화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혼인한 승려, 이른바 대처승의 급속한 증가로 조선 불교계의 대처승 확산은 일본에 유학하였던 승려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는 1920년대 이후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하며 조선의 민족결집 세력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친일세력 양성을 시도하였고, 많은 청년승려를 유학의 명분으로 일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승려들은 대부분 일본 불교계의 습속을 익혀 결혼과 육식을 하였고,³⁸⁾ 점차 조선 불교계에도 대처식육을 하는 승려가 늘어났다. <자료15>는 이 무렵 조선불교의 대처논란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자료15>“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승려들은 혼인과 육식을 감행하여 청정사. 대처승들이 날로 늘 찰을 더럽히고 마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승려의 본분을 망각하니...(중략)…늘어나고 조선 전역의 절이 썩어 들어가는 지금, 그 낱알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백용성 1926)³⁹⁾

37) 그리고 『개벽』제61호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 1925.에는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홍명희(洪命熹)가 “원효를 노코 親鸞을 말하며 이순신을 두고 『넬손』을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자랑끼리를 말한다는 말입니까.”라는 언급이 수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에서 일본불교 확산과 함께 신란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알려졌음을 짐작 할 수 있다.

38) 일본불교는 1872년(明治5) 4월 25일 ‘太正官 훈령 33호’로 “승려의 肉食帶妻는 각자 임의에 맡긴다”는 조칙을 명하였다. 이후로 승려들의 ‘肉食帶妻’가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9) 백용성(白龍城, 1864~1940)이 1926년 5월 조선총독부에 대처금지조항을 유지하라는 탄원을 제출한 건백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자료는 당시 대처문제가 많은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확산되었음을 말해준다. 논란은 지속되었지만 조선총독부는 조선불교계가 일본불교를 모방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1926년 11월 승려의 대처식육을 허용하고 각 본사에 대처승도 본사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사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매일신보』 1926.11.26.)함으로써 조선불교의 대처화는 가속되었다.

한편 대처식육이 확산될 무렵 파계승으로 대표되었던 원효가 조선의 대처승 논란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몇 가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김태흡의 「고승설화—원효대사」, 「삼천리」, 원효의 전기설화를 바탕으로 약간 윤색한 글이다.

<자료16> 자루없는 도끼 구걸(求乞)

“해방이다. 성적으로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사의 결논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혁명적으로 구원하자면 대사의 자신부터 먼저 교단을 위하여 제단(祭壇)에 오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사는 금육생활로써 깨끗하게 끝을 마칠가. 또는 ①미래 중생을 위하여 파계생활, 해탈의 생활을 개척해 볼까. …(중략)… 자기보다도 미래 사람을 위하여 ‘혁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내가 만일 파계 생활을 하고도 아무 까닭이 없으면 이 역시 취소꺼리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기운 몽치가 나의 입으로 드러가니 이것은 ②영특한 자식을 나를 조짐이 아닌가. …(중략)… 그러므로 태종왕은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해석 하되 『이것은 원효 대성(大聖)이 귀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으시려고 함이로구나. ③나라의 대현(大賢)이 나면 국가의 복됨이 이보다 더 지남이 있겠느냐. …(중략)… 공주는 이때부터 태기가 있어서 만삭이 되자 옥동같은 귀남자를 나시니 나면서부터 영민하여 넓리 경사(經史)를 통하고 육경(六經)을 훈해(訓解)하여 그 이름이 높아서 신라 십현(新羅十賢) 가운데 하나인 설총(薛聰) 선생이 그 였다.(김태흡 1940)

<자료16>에서는 원효의 파계를 ①혁명·개혁을 위한 희생적이고 대담한 결단 ②나라의 대현(大賢)인 성현인 설총의 탄생을 예감하고 의도한 행위 ③개인보다는 나라안위를 위한 목적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태흡은 원효의 파계를 ‘개혁’⁴⁰⁾과 ‘국가안위’에

40) 특히 ‘개혁’·‘혁명’ 등의 표현은 한용운과 같은 인물들이 대처허가를 청원하며 ‘승려의 결혼을 금한 것이 백 가지 법도를 유신하는 오늘의 현실에 적합치 않다.’며 종교개혁을 피력한 것과는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당시 김태흡의 행적인데, 그는 ‘조선 제일의 친일포교사’로 불린 일본유학승 출신의 인물로 이 글을 쓸 무렵에도 활발한 사회포교활동을 했다는 점⁴¹⁾이다. 이로 보아 그가 조선불교 내부에 일본 불교를 유포시키고 대처를 옹호하기 위해 원효의 과거를 선전하였을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2)『불교』에 게재된 조명기 『원효의 여성관-六.원효의 실천』의 일부이다.

<자료17>“無碍行中에는 女子도 公主도 없을 것이며 異事도 正行도 없을 것이다. 華嚴奧旨 오지를 體得하여 一道出生死한 人生觀이 確立하니 六度萬行이 任意隨機都無定檢일 것이다…(중략)…公主事件은 巷間の 色慾과 달은 宗教的眞理의 表現이라고 볼수가 있지 않느냐”(和幢 1940)

조명기는 원효의 과거를 불교의 종교적 진리와 결부시켜 진속불이(眞俗不二)를 깨달은 자의 무애행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3)아래는 위의 자료들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1930년대 원효와 요석공주의 스캔들이 수록된 신문자료이다.

41)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로도 불린 김태흡은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의 가장 많은 강연을 한 단골 연사이자, 『불교시보』를 친일 일색으로 편집·발행하여 총독부의 전시총동원체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인물이다. (임혜봉 1994:386) 그는 특히 중일·태평양 전쟁 기간에는 일본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기사와 사설을 『불교시보』에 다수 실었고, 시국 강연을 병행하며 전쟁 지원에 앞장섰다.

〈사진3〉 元曉와 瑤石公主⁴²⁾



〈사진4〉 寡公主와 元曉大聖⁴³⁾



픽션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위 신문 자료들의 공통된 내용은 원효의 파계가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라를 위한 인물을 배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과 화엄과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각각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3>에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큰 어진사람이 나올 조짐인가보다”, “원효도 유명하지만 요석공주의 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진4>에는 “원효의 이 노래의 뜻은 과거하는 귀인에게 장가들면 능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니 나라에 대현이 있음은 국리민복에 막대한 것인즉”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원효의 파계와 관련한 잡지·신문의 수록 자료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과 글을 서술한 자의 활동배경을 고려해보면 승려의 대처를 옹호하던 자들에게 원효가 탁월한 소재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원효의 파계를 언급한 몇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대처승 논란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며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불교 침투의 기본 방침 중 하나가 암시와 상징을 통한 동화정책이다. 원효의 파계를 국가를 위한 선지(先知)적 행위 혹은 사사무애의 실현으로 미화하며 민간에 유포하여 조선인에게 대처식육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정신적 침투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42) “아바마마, 원효대사께서 어진 여자를 얻어 어진 아들을 나려고 함이오니 나라에 어진사람이 나면 나라에 큰 이가 아니옵니까”(중략)“네말이 과연 옳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큰 어진사람이 나올 조짐인가보다”하고 곧 요석공주를 보내어 원효를 찾게 하셨다...(중략)“설총선생도 과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자라서...(중략)“유명한 어학가입니다. 원효도 유명하지만 요석공주의 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김병곤 1930)

43) “원효의 이 노래의 뜻은 과거하는 귀인에게 장가들면 유능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니 나라에 대현이 있음은 국리민복에 막대한 것인즉 내가 친히 중매하리라.”, 『동아일보』,(1938.01.22).

결론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원효가 부각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 논의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원효의 표상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짚어보고자 하였다. 논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 ①일제강점기 원효의 발굴(조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②식민동화정책의 표상, ③일본불교의 침투와 대처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한해 살펴본 각 장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정체성을 강조와 원효의 독자성이 부각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지식인들과 불교계는 원효가 당에 유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주요근거로 하여 ‘원효→조선불교의 독자성→조선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했다. 이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식민지배하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원효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효-불교-조선을 축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표방한 인물들의 논의가 일면 일제의 식민사관과도 모순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파악하였다. 최남선은 그의 발표문에서 원효를 통불교의 완성자로 부각시켰는데, 이 ‘통불교’개념이 일본 메이지시대 불교도들의 통합주의 불교관에서 빌려온 개념이라는 설이 있다.

둘째, 서당화상비의 발견과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신라’중심의 동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당화상비의 발견은 일제의 고적조사라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비의발견경위와 연구에 있어 일선응화의 논리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 그 관련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광수의 『원효대사』의 연세시기가 일제가 대륙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추구하던 때라는 점에서 그의 집필 의도와 원효 묘사가 갖는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정토진종의 포교전략과 원효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과 원효의 유사함과, 대처승문제로 요약하였다.

이와 같이 원효가 부각되는 시점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시대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원효의 이미지는 시대가 재구성해낸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이순자(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연구』, 경인문화사
- 황중연·유음(2008) 『신라의 발견』, 동국대출판부
- 마이카아워백(2008)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 박선애(2008) 『1910년대 총독부의 조선문화재 조사사업에 관하여』 『역사와 경계』69, 부산경 남 사학회
- 조승미(2007) 『근대일본불교의 전쟁지원-정토진종의 역할을 중심으로』 『불교학보』4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중욱(2006)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에서 내셔널리즘과 불교』 『동서철학연구』42, 한국동서 철학 회
- 石井公成(2006) 『근대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어서 『대승기신론』 연구의 동향』 『불교학 리뷰』1, 금 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 한승원(2006) 『소설 원효』, 비채
- 류시현(2005) 『일제하 최남선의 불교인식과 ‘조선불교’의 탐구』 『역사문제연구』14, 역사비평사
- 조은수(2004) 『통불교 담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사 인식』 『불교평론』21, 불교평론사
- 고영섭(2004) 『원효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오늘의 동양사상』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 김순석(200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 한영우(2003) 『원효 영원한 새벽』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1)』, 돌베개
- 김광식(2002) 『최남선의 『조선불교』 조선불교와 범태평양불교의 청년회의』 『새불교 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 김순석(2001)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淳碩(2001)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7, 한울
- 조기호(2001) 『일본 근대문화와 불교-親鸞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10, 한국일본어문학회
- 심재관(2001)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책세상
-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2001)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장경각
- 후지요시나리(2001)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 민족사
- 심재룡(2000) 『한국불교는 회통불교인가』 『불교평론』3, 불교평론사
- 와다토모미(2000) 『인물전으로서의 『원효대사』 연구』 『현대문학의연구』15, 한국문학연구학회
- 진성규(2000) 『조선시대 원효인식』 『중앙사론』14, 중앙사학연구회
- 후쿠시 지닌(1999) 『일본에서의 원효연구 현상과 과제 :일본불교에 보이는 원효교학의 영향』 『한국종교사연구』7, 한국종교사학회
- 임혜봉(1994) 『한권으로 본,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 후지요시나리(1991) 『원효와 신란과의 신관비교』 『제4회한국철학자연합대회보』, 한국철학회
- 이선복(198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 김지견(1987) 『해동사문 원효상 소묘』 『원효연구논총』, 국토통일원
- 김영태(1980) 『원효의 소명 서당에 대하여』 『한국불교학』5, 한국불교학회

- 이광수(1979) 『원효대사』 『이광수 전집』5, 우신사
- 이광수(1970) 『원효대사』(『원효대사전집』12권, 삼중당
- 황수영(1970) 『신라서당화상비의 신편』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 조명기(1962)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신태양사
- 和幢(1940) 『元曉의 女性觀』 『佛敎』28, 불교사
- 崔南善(1924) 『각 방면으로 관찰한 불교-조선 역사에 대한 불교』 『佛敎』, 불교사
- 權憲奎(1920) 『자아를 개벽하라』 『開闢』1, 개벽사
- 韓哲曦(1996) 『朝鮮近代史研究 双書6-日本朝鮮支配宗教政策』、未來社
- 金太裕(1940.03.01) 『高僧逸話, 元曉大師』 『三千里』12-3, 三千里社
- 葛城末治(1936) 『朝鮮の金石文より觀たる上代の日鮮關係』 『朝鮮の敎育研究』915、朝鮮初等敎育研究會
- 葛城末治(1929) 『柶戲より觀たる上代の日鮮關係』 『文教の朝鮮』41、朝鮮敎育會
- 東亞日報(1938.01.22) 『寡公主와 元曉師閨燈史談』
- 中外日報(1930.03.23) 김병근, 『史海, 삼국시대, 원효와 요석공주』
- 東亞日報(1926.05.19) 백용성, 『백여명 운명 범계생활 금지 동정』
- <http://www.riss4u.net/index.jsp>(검색일:2009.07.22)
- 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2815(검색일:2009.07.22)
- <http://www.history.go.kr>(검색일:2009.07.30)
- <http://www.sutra.re.kr>(검색일:2009.07.26)
- <http://www.nl.go.kr>(검색일:2009.07.22)

■ 논문초록

키워드	元曉, 日帝強占期, 表象, 通仏教, 新羅, 同化政策 Won-hyo, Japanese occupation period, symbol, Tong-Buddhism, Silla, assimilationism.
<p style="text-align: center;">日帝強占期(1910~1945)元曉再照明に対する予備的考察</p> <p style="text-align: right;">崔 在穆 · 孫 知慧</p> <p>本稿は、日帝強占期間に(元曉, 617-686)という人物が特別に目立った理由、そして当時に成り立った‘元曉表象化’が持つ歴史的意味を省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この論文では、日帝強占期(1910~1945年まで)に限定して、主にこの時期の仏教系関連資料に基づいて‘元曉再照明’の様相を述べた。今までの元曉に対する研究及び論議は、韓国の歴史的状況や影響によって、主に民族主義的観点から進められてきた。ここでは可能な限りこのような観点から脱して元曉を巡っての日韓両国の隠れた知的論理と時代的要求の背景などを論究してみた。</p> <p>日帝強占期に、特に元曉が韓日両国の学者及び仏教系人物によって再照明されるようになるのは、植民地という特殊な時空間が元曉という特定人物の表象化を要請したからである。元曉は唐に留学せずに独自の思想体系を確立した人物である。この点が強調されたのは、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民族的自尊を鼓吹しようとした意図による面もある。そして彼が‘新羅’や‘護国’の象徴的人物に描出されたのは日帝強占期の宗教と文化を含む主要懸案が国家存立と密着していたことを示唆する。以上のようなこと‘元曉表象化’の持つ歴史的意味は色々ある。これから、この論究を踏まえて元曉研究が一層進めばと思う。</p>	
필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최 재목 (한자): 崔 在穆 (영문): Choi, Jae Mok 영문제목: Preliminary Consideration on the Rebirth of Won-hyo between (1910s~1940s). 소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전화: 053-810-2195 / 010-7574-2195 E-mail: choijm@ynu.ac.kr
논문 작성 일시	투고마감일: 2010.2.15 심사일 : 2010.2.16 심사완료일 : 2010.3.13